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장애인 주일 특별메시지

## 하기 힘든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목사 이종운(서울교회 담임)

사랑에는 하기 쉬운 사랑도 있지만 하기 어려운 사랑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기도 쉽고 유쾌한 사랑이지만 배신자를 사랑하고 쓸모없고 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가깝고 친한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거나 시간을 주는 것은 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원수나 내게 손해를 주거나 내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며 값진 선물을 주는 것은 정말 극난한 사랑이다.

기분과 형편을 따라 가끔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영구히 변치 않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실로 힘든 사랑이다.

\* \* \*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자요 쓸모 없고 천한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영원하고 책임있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극난한 사랑이다.

\* \* \*

이제는 나도 하기 힘든 사랑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가르치고 도와봤자 효용가치도 없고 인간구실 조차 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에게도 임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오늘도 눈 멀고 말 못하고 걸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저능아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되며,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줄 저들의 길동무가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

장애인 주일에 “소외되고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기 힘든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자.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특별헌금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한 무릎 선교사 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특별헌금을 드린다.

KIMCHI 신학세미나는 세계로잔위원회의 공인을 받은 기구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곳의 문화와 언어, 습관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현지인을 양육하면 비용과 시간도 절약되고 선교

의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어 1990년 11월2일 제1차 KIMCHI 신학세미나(대상국가: 동유럽)를 개최한 이래 매년 각국의 교계 지도자를 초청,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새벽기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프랑스 교계 지도자들이 은혜 받고 갱신되도록 기도한다.

## 복음 확산 위한 몸부림

- 프랑스 개혁 신학교도 지원하다 -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어권 선교의 요람이 되는 Aix em Province 개혁신학교에 우리교회는 지난 주에 미화 10만불을 지원했다. 칼빈의 생각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회가 쇠퇴하여 힘을 잃고 교회와 신학교가 고사 직전에 허덕이고 있어 우리교회는 지난 2월에 리옹 동부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미화 6만불을 지원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신학교를 지원하여 프랑스 교회 재건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19일(월)부터 10일간 프랑스 교계 지도자 32명을 초청하여 KIMCHI 신학세미나를 통해 잠자는 프랑스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더 큰 복을 주셔야 할 것 같다. 계속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며 기회 있을 때 껌뻑 기뻐하며 섬기자.

## 2008 홍해작전

6월6일(금)~25일(수) : 20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2008년 홍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 민족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이번 홍해작전은 총회주제("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 10:10하))에 맞춰 '자유, 평화,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을 계대하자!'를 표어로 제정하고 6월 6일(금)부터 6월 25일(수)까지 20일간 새벽 5시부터 본당에 모인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은 3부로 나뉘어

**1부(6일~11일): '자유' - 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약학, 서울대, 장신대신대원, 유니온신대, 플러신대원 Ph.D)

**2부(12일~18일): '평화' - 허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신약학, 한국외대, 미국WTS신대원, 영국웨필드대 Ph.D)

**3부(19일~25일): '정의' -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총신대, 서울대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영국 세인트앤드류스대 Ph. D)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자유, 평화, 정의에 대해 말씀을 받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 2008년 홍해작전 기도제목 ▶

-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4. 우리를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사랑의 열정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여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 5.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주님!**  
2010년까지 교회학교 학생 일 만 명 이상 출석,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아가페 타운을 건립하게 하옵소서.
  - 6.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  
서울교회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면서 향도해 나가게 하옵소서.
  -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게 하시며 북한 동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 새벽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부터

###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 시작

지난 주 2층과 8층을 오갈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엘리베이터가 운행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각 층 슬라브 바닥 커팅 및 보강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금주부터는 OTIS 엘리베이터에서 본격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공사의 여파로 교회 모든 층에 먼지가 일부 남아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도들은 사용하는 각 호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과 자녀들의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5월 중순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 5월4일 어린이 청소년 초청 대회

- 어른은 어린이 세 사람,  
어린이는 친구 세 사람 -

“애들아 교회가자!”

## 2008 봄 시즌 제9회 화요정오음악회

2008년 봄시즌 화요정오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주 화요 정오음악회는 차주연 선생(베델교회 오르가니스트)의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된다.

다음 주(4.29)는 권정원 선생의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된다.

### 금주의 성구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ohn 21:17 [NIV])

장애인주일 - 호산나학교

#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홍미경(호산나중고등대인학교 학부모)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호산나학교 중고등부 신입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제 아들은 일반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1년 반 미국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기에는 너무나 여린 아들의 상황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앞서기 보다는 주님 안에서 안정된 정서로 커가기를, 그래서 쓰임 받는 사회인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제 기도에 좋으신 하나님은 호산나학교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주위 분들의 격려 속에 호산나학교에 입학한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반학교에서는

늘 긴장하며 생활하던 아이가 수지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니면서도 늘 즐겁게 다니는 것을 보면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아이를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과 남다른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밝고 씩씩하신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을 더 열심히 격려해서 잘 자라도록 응원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저희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학생들이 열심히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도, 물질로, 관심으로 도와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 사랑에 답 할 수 없지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 ~16)는 말씀에 따라 우리아이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하여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울 교회 모든 가족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 호산나학교 학생들  
 ▶ 장애인 복지와 교육 및 노인복지에 새로운 지평을 세울 이가페티온 현장

장애인주일 - 호산나학교

#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윤형배 (호산나전문대학 가족)

내 동생 윤혜리. 혜리는 86년생이며, 왕방울만한 눈망울이 예쁘고, 웃을 때 보조개는 더 예쁘다. 먹는 것과 집 어지르는 것이 취미인데다가, 엄마 말 안 듣는 것이 특기인 아주 깜찍한 녀석이며, 거기에 더불어 호산나학교의 분위기메이커(자칭)인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기도 하다.  
 혜리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만큼, 혜리는 다른 보통 아이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 주기도 한다. 어느 집에서 23살짜리 처녀가 아버지와 오빠에게 마음껏 안길 수 있겠으며, 퇴근하고 올 때 반갑게 맞이하며 뽀뽀를 해 줄 수 있을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없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나 행복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혜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서 지금보다 더 힘들어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지탱해 주셨고, 지금의 우리 가족



이 있을 수 있었다. 나 역시, 장애인 동생의 존재로 인해 자칫 힘든 사춘기를 보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혜리는 서울교회 사랑부에서, 그리고 호산나학교에서 자신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밝은 모습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물론 혜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혜리의 밝은 모습을 키워준과 동시에 항상 식사 후에 양치질하는 습관을 가르쳐 준, 그리고 매일 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준 서울교회 사랑부와 호산나학교에도 거듭 감사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장애인주일 - 에바다부

# 기꺼이 해냈습니다!

이종봉 성도 (에바다부)



1980년 3살 이 될 무렵... 서울대학병원에서 컴퓨터 검사를 통해 청각장애로 판정되는 순간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앞날이 막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수교육기관을 찾아가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발음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초가을, 수업을 마치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병원 의사의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당신의 힘으로 부디 불쌍한 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대수술을 4번이나 받으면서 곳곳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거의 잊어갔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선생님, 어머니, 그리고 나는 삼위일체가 되어 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현실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심어주시어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선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교 졸업과 함께 경문대학 생활체육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청각장애인 배드민턴 올림픽 대표로 발탁되어 2001년 이태리 로마 농아 올림픽경기대회에서 한국농아배드민턴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여받았고, 2005년 호주 멜버른 농아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 메달을 획득하여 장애인 체육발전과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후배 배드민턴 선수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결혼하여 딸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함으로 인해 기꺼이 이겨냈습니다.  
 이제 지금 이 곳에 저를 세워놓으신 뜻과 부르시고 보내실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하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인주일 - 대학부

# 믿음으로 더불어 사는 모습

박한샘 (대학부)

저는 서울교회 대학부, 사랑부를 섬기고 있고 올해 나사렛대 언어치료학과 3학년이 되는 박한샘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뇌수종(이분척추)이라는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초기에 치료만 잘 해주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에 가까운 성공률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건강하게 길러준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7년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가정 형편상 저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장애아동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도중 친구의 권유로 서울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서울교회와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회선생님과 교회의 활동을 통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많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렵고 힘든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언어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어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큰 배움터라는 곳에 지금까지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서울교회의 여러 선생님의 응원 물질적인 도움 등 너무 많은 것을 받아 셀 수도 없을 정도지만, 제가 이렇게 저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응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 예배다부와 사랑부의 특별찬양으로 준비된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온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이 충만한 이들의 감격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배다부는 수화로, 사랑부는 핸드벨, 기타와 벨플레이트와 하모니카를 사용하여 찬양을 드리며, 예배다부 - 지휘 이순임 선생, 사랑부 지휘 - 김세원 선생(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원 특수교육 전공)이 맡는다.

## 2008 교구찬양대회

2008년 교구 찬양대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교구찬양대회는 5월16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린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오정수, 이영기 장로와 함께 21일(월) 방글라데시 선교지 순방차 출국하여 25일(금) 귀국한다.
- 장로회 신학대학교(총장 김중은)는 개교기념일인 5월14일에 이종윤 목사에게 명예박사학위(D. D.)를 수여한다.
- 특남 : (5-8) 송승흠, 최금희 성도 가정
- 주간식당 봉사: 당회원(4.20) 제1스데반(4.27)
- 금주의 식사 : 유명종 집사 이형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장애인주일 - 호산나학교

## 즐거움 예배시간

정중우 (호산나중고등대안학교)

즐거움 예배시간이 시작되자 아름다운 천사들의 향연 소리가 들려와요.

잠시 후 말씀 듣는 시간, 모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설교를 듣고 안자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소리에 더욱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전 호산나학교 예배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서울교회 목사님들이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호산나학교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목사님, 사랑합니다.



## 호산나 사랑해!



인재모 (호산나대학 3학년)

2006년 3월에 입학한 지도.... 벌써 엊그제인데....

지금은 학교생활이 만

족스럽다.

선생님들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 보인다.

우리 3학년하고 지금의 예비2학년. 재할학과 등등... 반이 모자랄 정도이긴 해도. 그래도 난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우리 호산나가 크게 발전해 나가길 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난 우리 전문대 1.2.3학년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꿈들을 갖고 잘 됐으면 한다. 사실은 나도 취미로 하고 있는 그것들 모두다 현실로 일어났으면....하는 것이다.

난 호산나 좋다. 선생님들도 좋고... 친구들도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이보다 많은 것이 닥쳐올 것을 대비하기위해...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이 내가 바라는 꿈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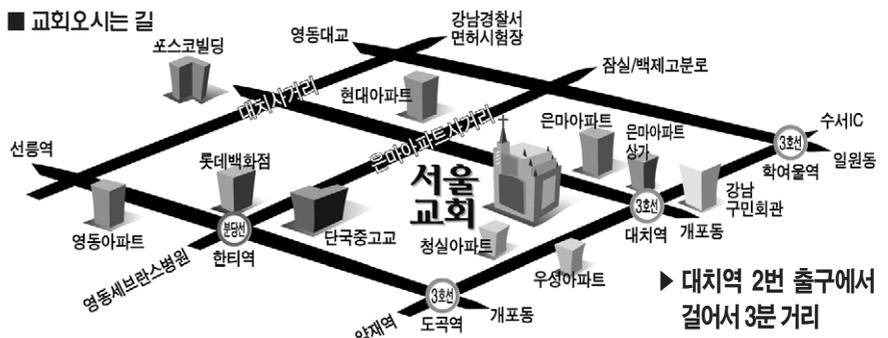
호산나 사랑해! 친구들과 선생님도요.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월4일 '애들이 교회 가지'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